

2025년도 중등특수 n수 충청북도 합격수기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저에게 합격수기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신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합격하여 합격수기를 올리고 싶다고 생각만 했었는데, 몇 년이 걸쳐 이제야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이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개념을 확실히 외우고 공부방법을 바꾼 것입니다.

일단 기본개념을 확실히 외운다 라는 것은 되게 당연한 소리이죠..?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이 기본개념에서 많이 틀리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기본문제만 실수하지 않고 맞춰도 합격해요.

심화에 신경쓰기보다 기본이론서를 회독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하루패턴은 상반기5월까지의 월에서 토까지 7시-10시까지 공부했습니다.

6월부터는 일요일까지도 공부했어요. 일요일에 오후 2시까지 하다가.. 점차 늘려나갔죠.

주별/월별 상세한 계획은 맨 아래부분을 참고해주세요

간단하게 교육학과 전공에 관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①교육학

3월부터 사모교수님 강의 들었습니다.

교육학은 밀리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전공강의가 있던 날도 최소한 30분-1시간은 교육학을 공부했고 그 외 요일에는 매일 최대 3시간까지는 교육학 공부하였습니다.

교육학은 다른 것보다 계속 배웠던 내용을 계속 쓰면서 공부했어요. (6월까지)

하반기부터는 교수님이 주시는 단락모고, 파일널 모고 등을 엄청 반복해서 풀어봤어요.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변형해서 적어야하겠다 할 정도로 셀 수 없이 쓰고 말 해보면서 교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18.33 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학으로 말이 많지만 전 제가 예상한 점수가 나왔어요.

물체냐 칼체냐 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을 그냥 무조건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②전공

전공 정말 공부방법을 잘 짜셔야합니다.

사람마다 공부방법은 달라요.

제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꼭 참고해주세요.

전 기본이론서를 거의 외우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공부했어요.

작년 시험까지만 해도 인출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외워서 답을 써야 어떤 채점자가 채점해도 틀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본이론서를 엄청 회독하면서 쓰고 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출문제를 공부했죠.

기출문제 단순히 답 작성하고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의미 없는거 아시죠?

분석을 하셔야합니다. 지문을 계속 쪼개서 보세요.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한 장점, 단점, 특성 등이 인출이 되는지 보시고 이 지문에서 어떻게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기출분석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지만 허쌤 기출분석 강의를 듣고 어떻게 하는 지 깨달았어요.

다른 강사님들과는 다른 기출분석입니다! 정말 기출분석 강의는 추천드립니다!

기출을 보는 눈이 달라질거예요!

개인적으로 새로운 각론서가 나왔다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맞추는사람 몇 명 없어요.

차라리 기본에 충실하시는 게 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교육과정, 점자, 지문자 이거 틀리면 안되는 거 아시죠?!

전 책들이 찢어질 정도로 외웠어요. 그냥 하루에 30분-1시간씩 투자하시면서 계속 외우세요. 그리고 점점 분량을 늘려나가세요.

저의 예시를 들자면 법 기준으로 7일 기준으로 38조까지 나뉘었는데, 나중에는 4일이면 38조까지 다 보더라구요. 9-10월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③ 스테디

전 스테디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스테디가 필수로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테디를 하면 부담이 많이 되는 타입이어서 대부분 혼자 공부했습니다.

교육학은 기본개념 인출과 7-8월 자료 랜덤으로 묻고 답하기 정도 했구요.

전공은 법, 교육과정, 점자, 웹접근성을 랜덤으로 물어보는 밴드 스테디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시간을 빼앗지 않고 정말 필요한 스테디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공부방법을 간단하게 작성해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네요..ㅎㅎ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은 쌤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이 잘 안 들리실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수교사라는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거라면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쉬셨다가 다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했으니까요 !!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허쌤께 감사드립니다. 거의 2년반? 정도 수업을 들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분석하는 방법은 정말 허쌤 수업을 통해 많이 깨달았어요!! 기출분석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정신적인 멘토가 되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힘들때도 연락하시면 매일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합격 수기를 쓰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당 !!!

5월 이후부터는 교육학이랑 전공 계획표를 따로 만들었어요

교육학 주간 계획표입니다.

교육학은 사실 계획표를 별로 세우지 않았어요.

교육학은 단순하게 강의 듣고 복습하고 암기한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거의 아래 패턴대로 공부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개념 예습	스터디준비	문제풀이	스터디예습	스터디예습	기출문제 풀기	기출문제 풀기
	스터디예습	스터디	강의듣기			개념복습	개념복습
		문제풀이					
오후	7-8월 10문제	강의듣기	교육학복습	7-8월 10문제	스터디	7-8월 10문제	7-8월 10문제
		교육학복습	7-8월 10문제		7-8월 10문제		

